

PRESSBOOK

Jin MEYERSON

Art in Culture

October 2009

전 시 리 뷰

진 마이어슨展

아라리오 서울 : 9. 3~10. 25
아라리오 천안 : 9. 18~10. 25

글 | 김민선 · 류레이티, 이화여대 겸임교수

진 마이어슨(Jin Mayerson, 1972년생)의 전시가 아라리오서울과 천안에서 동시에 열렸다. 한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에서 자라난 작가이면서, 해외에서는 꽤 명성 있는 작가로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는 작가이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알린 계기가 된 대담적인 개인전이였다. 그의 작품이 눈길을 끄는 것은 우선은 시각적으로 극적인 효과이다.

잘게 부서진 듯 흐트러진 무수한 색면들이 화면 속을 채우고 있고 이 면들을 연결하는 선의 흐름에 의해 화면 전체에 유동적인 리듬감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뜻 추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 장면이 변형된 가한 이미지이다. 피콜레처럼 밀려들어올 듯 특징 장면이 연상되고 있기에 어떤 구체적인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의 파편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

그 장면들은 대체로 시끄러운 무너져나가는 대형 건물 속에서 빠져 나오는 사람들이거나 경사로를 뚫고 걷는 집단 행위의 현정들이다. 작가가 선택한 '도시'라는 장소는 획일화된 단체 행동이 당연시 되는 인간의 모습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도시'가 인간의 행태가 단절하게 특정 지워질 수 있는 이벤트와 사건이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점이 흥미롭지 않겠는가.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어떤 학문에 세든지, 특히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추구해 온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여러 행태의 인간 본성의 단면은 언제나 문학과 미술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이자 주제였지만, 동시에 여전히 모호한 채 남겨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찾는다는 것은 자처지도 않고 예전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시도되고 있는 예술의 영원한 주제인지도 모르겠다.

진 마이어슨의 작업 속에서도 여지없이 인간의 모습이 등장한다. 작가는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집단적인 상황 속에서 비추는 군상을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즉 신문이나 잡지 매체에서 발행된 사진들이 작품의 일차적 소재가 된다. 신문이나 잡지 매체에서 다루는 이미지라는 것은



집단적인 흐름과 반응을 일으키고자 의도하는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진 마이어슨의 소재를 찾아내는 방식에서 또한 관심이 쏠린다. 이 곳에 사 찾아지는 소재는 현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느끼는 환호 공포감 위험 기쁨 등을 전달하고 있는 사건들의 기록인 것이다. 그러한 반응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는 기류에 대해 작가는 보다 적극적인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발행된 사진은 작가의 손을 거쳐 그 이미지가 뒤틀러지고 있다. 집단적인 모습이기에 개개인의 표현보다는 그 상황이 전달하는 분위기와 그에 대한 반응이 이미지의 뒤틀림 속에서 나타나는 리듬과 선의 움직임에 의해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그 결과물은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작가가 만들어낸 또 다른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흥분되는 경험을 유도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점점 더 발육스럽게 이미지와 진실을 탐험하고자 허거나 혹은 놓쳐버린 어느 형상의 실마리를 찾다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거대한 화면 속에서 마치 눈에 잡힐 듯 나타나면 으르렁거리고 사라지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건 사고, 혹은 환화의 순간에 동참하게 하는 듯한 느낌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중매체를 소재로 이미지를 찾는 경향이 비록 많은 작가들에게서 시도되어 왔지만 이 작가의 경우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다. 찾아낸 소재가 작가의 손에 의해 다시 한 번 폭력이 가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들을 제3자로사기 아니라 즉각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갑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는 사실과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의 변화가 관객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우리들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타인의 모습을 세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위 <FastBreak>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160×180cm 2004~9
아래 <Marifestation>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64×80cm 2009.



노중기展

9. 1~13
수상아트피아

글 | 양운호 · 미술사학 박사

"누구나 25세에는 재능이 있다. 어려운 것은 50세에도 그 재능을 잃지 않는 것이다"
- 에드거모드 드가

노중기의 이번 개인전은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작업을 모은 결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 70년대 후반 정무니 조형작업은 작가가 가진 에너지의 자유로이 남긴 신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말처럼 내려쳐서 놓린 순간들의 압박은 작가가 점점이 막혀 있다. 비록 나무를 대고 말치를 들고 화지 위를 뛰어넘는 신체이 운동과 침몰의 가치가 앞으로 그의 작업이 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변으로 전개하는 인식 방법의 기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식 방법은 신체성을 그대로 뛰어넘는 프로타주(protage)이다. 이는 이전의 그가 보여준 뛰어난 사실력을 두고 새로운 내적 가치를 찾아가는 두드림이다.

이후 그의 조형 작업은 북 자국을 흔적으로 남기는 작업이나 흥미를 벗어나 흥미의 뒷간 흔적을 남기는 작업에서도 이어진다. 북으로 뜻이 그리거나 흥미가 뒷가면서 형상을 감지하는 것에서 꾸준히 그리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면서 주제를 알리고 같은 움직임은 형상을 담는다. 80년대는 미술이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재의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형적인 모습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인간이 현실을 비판할 때 갖게 되는 부정적 사유 속에는 고뇌라는 감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긍정을 향한 힘이 된다. 그래서 한국의 현실과 체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치와 문화의 가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비판을 한다. 그는 예술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책임을 문화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주관과 객관,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부정의 방식을 프로타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자이크처럼 이문화한다. 그의 작업에는 각 개인의 부정성이 합성되는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이 참된 전체를 산출할